

>>> 부시정부의 대폭적인 예술지원 예산 증액 계획

The New York Times, Jan. 29, 2004

미 정부 관리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립예술기금(NEA)의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안은 그간 계속된 예산 삭감과 존폐위기를 넘겨온 NEA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 예산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NEA에 대한 예산 증액 규모는 약 1,500만 - 2,000만불 규모에 달할 것이라 한다. 작년의 경우 5십만불, 금년 5백만불의 예산이 증액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최근 20년 동안 최고의 예산 증액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NEA의 예산은 1억2천1백만불로 1992년 전성기 때 보다 31%나 낮은 예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1995년부터는 예산이 가까스로 1억불에 달했으며 5년간 예산이 동결되기도 하였다.

>>> 조용한 혁명 - 유럽 오케스트라 소음과의 전쟁

Guardian, Jan.17, 2004

2006년 2월 시행을 앞둔 노동자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EU규약으로 인해 앞으로 유럽의 오케스트라는 아무런 음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곡으로 연주해야 할 지도 모르는 조용한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오케스트라협회가 발간한 Alison Wright Rei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케스트라의 소음은 청각상실, 음정불안, 이명현상과 통증 등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특히 바이올린이나 더블베이스와 같은 현악연주자 보다 금관과 목관 연주자들이 높은 데시벨에 노출되고 있어 청각보호를 위해서는 연습시간의 최소한 반 이상은 귀마개를 하도록 동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이 규약 때문에 어쩌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나 브루크너나 말러의 ‘교향곡’ 과 같이 시끄러운 음악이나 EU의 국가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환의의 송가’조차 이 규약의 제재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노동자임에는 틀림없으나 과연 이 아름다운 소음을 규제할 수 있을지, 조용하게 연주하는 바그너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 본고장, 스페인 세빌리아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카르멘>

Christian Science Monitor, Jan. 23, 2004

스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실제 배경도시인 스페인 세빌리아에서 대규모 <카르멘> 공연이 기획되고 있다. 야외공연으로 계획된 이 공연은 전 4막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1막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공연의 기획자는 비엔나 출신의 오페라 제작자인 마이클 엑커로 그는 1988년 주빈메타 지휘, 장미모 연출의 푸치니 <투란도트>를 베이징 자금성에서 프로듀싱 하였으며 1983년에는 영화 <카르멘>으로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한 인물이다.

이 카르멘 공연은 스페인 감독인 카를로스 사우라(Carlos Saura)가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며 거장 로린 마젤(Lorin Maazel)이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약 8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할 것이라 한다. 카르멘 역은 유명한 Olga Borodina, Angela Gheorghiu, Denyce Graves, Ekaterina Sementschuk가 번갈아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팀도 화려한데, 오스카상 촬영상을 3번이나 수상한 Vittorio Storaro, 일본인 조명디자이너인 Motoko Ishii를 비롯하여 비엔나 오페라의 음향엔지니어인 Wolfgang Fritz 등이 참가한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를 휩쓰는 디즈니 작품

San Francisco Chronicle, Jan. 25, 2004

월트 디즈니사가 영국 런던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의 콜롬버스, 이름 모를 전 세계의 도시들에게까지 브로드웨이 뮤지컬 히트작들인 〈라이온킹〉·〈아이다〉·〈미녀와 야수〉에 이어서 다른 작품들의 뮤지컬화를 확대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야기되었던 〈메리 포핀스〉와 디즈니 노래 선집인 〈On the Record〉가 막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타잔〉·〈인어공주〉·〈노틀담의 꼽추〉가 모두 무대용으로 각색이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Pooh's Perfect Day〉 공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의 야심찬 확장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디즈니사는 〈미녀와 야수〉로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를 벌었고, 〈라이온킹〉으로 10억 달러, 〈아이다〉로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세 작품들은 아직도 브로드웨이와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어서,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 가상 오케스트라 '신포니아' 도입 논쟁

The Guardian, Jan. 21, 2004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 극장의 연주자들 사이에선 최근 뮤지컬에서 오케스트라를 일부 대신하는 전자 악기 장치 도입 계획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신포니아(Sinfonia)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연주자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러나 이 전자 악기는 결국 연주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청중을 기만한다고 뮤지컬 극장의 연주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신포니아는 〈미스 사이공〉이나 〈오페라의 유령〉같은 뮤지컬에서 사용되었으며 오케스트라의 일자리를 삼분의 일에서 절반 가량 줄였다.

이에 100명 이상의 음악 연주자들이 긴급모임을 갖고 수준 낮은 연주와 고용 기회 상실에 대해 항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투표하였고 결국 매킨토시 경은 지난밤에 연주자 노동조합 임원들과의 회의에 동의하였다. 연주자들은 이번 '신포니아'의 도입이 〈미스사이공〉·〈오페라의 유령〉·〈마이 페어 레이디〉같은 매킨토시 경이 제작한 다른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른 웨스트엔드 뮤지컬에게까지 확대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 미술관인가? 예술품인가?

New York Times, Jan. 25, 2004

워싱턴 주의 벨뷰 미술관(Bellevue Art Museum)이 지난 9월 새로운 기획전을 시작한지 3일만에 갑자기 전시를 중단하고 미술관의 문을 닫았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지역 경제의 어려움, 불명확한 미술관의 미션, 리더십 갈등 등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약간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3년 전 뉴욕의 건축가 스티븐 홀(Stephen Holl)에 의해 설계된 이 전위적인 미술관 건물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신문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벨뷰 미술관에 대한 공공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이 미술관 건물이 전통적인 미술전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현직 미술관 대표들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 미술관 대표들과 현 이사회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간의 전시기획이 지역 관객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가, 넓은 내부공간과 높은 천장 등 미술관의 인테리어를 고려하지 못한 전시기획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영국 연극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앤드류 로이드 웨버

BBC, Jan. 07, 2004

『The Stage』지에서 선정하는 영국 연극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4년 연속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선정되었다. 현재 55세인 그는 런던에서 13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뮤지컬 〈봄베이 드림스(Bombay Dreams)〉뿐 아니라 〈Tell Me On A Sunda〉도 흥행에 성공했다. 『The Stage』지는 그의 명성,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4년 연속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는 현재 『The Woman in White』라는 소설을 토대로 새로운 뮤지컬을 만들고 있다.

그는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Cats〉·〈Evita〉·〈Starlight Express〉 같은 뮤지컬의 성공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하였다.

>>> 베르사체의 죽음을 다룬 뮤지컬 논쟁

The Glove & Mail(Canada), Jan. 13, 2004

이태리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의 1997년 피살사건을 다룬 뮤지컬이 캘리포니아의 라 졸라 플레이하우스(La Jolla Playhouse)에 의해 기획되고 있으나 이 계획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남 플로리다의 게이 커뮤니티의 일부 멤버들과 베르사체의 살해 용의자인 쿠나난의 친구는 이러한 뮤지컬 제작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쿠나난의 대부이자 그 집안의 오랜 친구인 델핀 라바오는 “그 기획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27살의 유명한 고급 게이 남창이자 마약 상용자인 앤드루 쿠나난은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의 살인 외에도 5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베르사체의 살해 용의자로 쫓기던 중 마이애미비치의 한 요트에서 시체로 발견된 바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디스포저블(Disposable)〉이 될 예정이다.

>>> 베일 벗는 피렌체 메디치가(家)의 비밀

Discovery, Jan. 10, 2004

이태리 당국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Medici)일가 50여 명에 대한 최후의 비밀이 베일을 벗게 될 것이라고 한다. The Learning Channel에 의해 촬영되는 이 프로젝트는 1434 ~ 1737년까지 피렌체와 투스카니 지역을 지배한 메디치가의 삶과 죽음을 재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피렌체 북부 무젤로 계곡의 농가(農家)인 메디치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로 르네상스의 영광을 누렸으며, 예술의 후원자로서 또한 시 통치자, 교황과 왕, 황제들을 배출하였다.

과학자들은 올해 6월부터 피렌체 산 로렌조 교회의 메디치 예배당에 매장되어 있는 시신들을 발굴하여 메디치 가문의 유전적 구조와 실제 가계도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1966년 홍수 때, 손상되었을 유골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연구소는 지하 납골당에 차려지며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샘플은 심도깊은 분석을 위해 피사대학으로 옮겨진다.

>>> 미술품 시장에 부는 러시아 부호들의 바람

Telegraph, Jan. 13, 2004

화려한 집과 비싼 보석류를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신흥 부유층들이 예술시장에까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 신흥부호들은 그들의 멋진 집을 장식할 미술품들 특히 러시아 화가들의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한다. 런던 소더비 경매의 러시아 담당에 따르면 1997년의 경우 연간 경매 매출액이 130만 파운드였는데 작년 연말의 매출액은 거의 1,300만 파운드로 10배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소련 붕괴 후 뒤따른 자유경제체제에서 큰 돈을 번 러시아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명성만 쫓는 영국의 현대미술 경향에 대한 비판

BBC, Jan. 13, 2004

영국의 대표적 화가인 키프 윌리엄스 경(卿)이 예술보다 명예에 더 관심을 갖는 현대 예술가들을 비난했다. 영국 왕립 미술원 회원인 85세의 키프 경(卿)은 대다수의 현대 개념 예술이 “아주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대학의 예술 교육에 대해 “창피하다”고 말했다. 북부 웨일즈의 오리엘 권글 갤러리 개막 연설에서 예술기관들 뿐 아니라, 예술위원회와 터너상, 웰시 기금 등도 비난하였다. 그는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예술 그 자체보다는 명예와 대중적 인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키프 경(卿)은 웨일즈 미술공모전을 후원하고 있으며 공식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에 회화가 너무 무시되어 왔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술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지난 50년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웨일즈 사람들이 예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그림을 원하는 것 같다. 그들이 그림을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치기 개같은 웨일즈적인 것이 그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주장한다.

>>> 변신을 시도하는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Andante, Jan. 15, 2004

영국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Philharmonia Orchestra)가 오는 봄 시즌을 맞아 많은 관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실황연주와 수준높은 음반작업 등 동 오케스트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재창출한다는 목표로, 클래식 FM을 애청하는 타입의 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폴로 두상인 현재의 로고가 큰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글꼴 또한 그래픽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어 보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며 비주얼한 면이 강조되는 심볼로 바꿀 예정이며, 라이브 콘서트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1945년 EMI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월터 레그(Walter Legge)에 의해 창단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런던 로열 페스티벌홀의 상주 오케스트라이며 런던을 비롯하여 Basingstoke, Bedford, Leicester 등지에서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